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인터뷰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해야”

‘노동’ 부정적인 표현 아나
국민 전체의 인식 개선 필요
노동인권은 시민권만큼 필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국민에게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송태수 교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두 임금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 사람들은 왜 ‘노동’에 거리감을 느끼는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해방 직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로 부르다가 10년 뒤부터 ‘노동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후 공산주의 진영에서 노동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해 ‘근로자의 날’으로 다시 용어를 변경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고, 북한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용어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 뒤로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표현의 사용 빈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고려대 언어학과와 민족문화연구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언론에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1968년 ‘근로’의 사용 빈도가 ‘노동’의 사용 빈도를 역전했습니다. 1987년 두 단어의 사용 빈도 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근로라는 표현이 노동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노동은 정치적 이념으로 고착돼 아직도 부정적인 단

어로 인식되고 있어요.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노동법이라는 명칭은 존재하는데 노동법 안에는 노동이라는 단어 대신 근로라는 단어만 있는 식이죠.”

- 노동자 선임권 굳어진 이유는
“사용 빈도가 낮아진 ‘노동’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에 육체노동과 단순노동에 국한된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범죄자 수배 전단에 ‘노동자 품의 인상작의’라는 표현이 적힐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됐어요. 반면에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거나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정의하죠. 이게 이어져 현재에도 ‘육체노동자’와 ‘정신근로자’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며 둘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과격하고 불순한 사회 운동으로 묘사되기도 했어요. 깨끗한 이미지의 시민운동과 비교하면 둘의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헬기로 진압한 사례까지 있죠. 정부가 개입해서 빨리 제압해야 하는 행위로 강하게 인식됐거든요. 교과서에도 ‘노동자 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빨간머리띠를 두르고 폭력적으로 투쟁하는 행위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 노동 인식 개선의 필요성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노동환경 개선은 어렵습니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결국 비용 문제거든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해지고, 거기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효율보다 노동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선 국민 전체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죠.”

노동 인권은 필수적인 시민권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노동 인권은 헌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 노동자들은 자신이 불순하다고 인식될까봐 불만이 있어도 나서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개선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임금 노동자의 3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72%가 임금 노동자예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노동자가 없으면 소비자로서의 편의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곧 소비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자신이 그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공받는다는 인식을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 학교 노동 교육은 왜 필요하나
“학창 시절에 형성되는 특정 직업에 대한 태도와 의식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직업 귀천 의식이 강한 편이에요. 흔히 ‘갑질’이라 부르는 행위도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귀천 의식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또 물질적인 부분이 중요해지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점점 더 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의식과 노동에 대한 태도가 교육을 통해 더욱 잘 형성돼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번역, 배달 앱 등을 활용한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경계도 불명확해지고, 학생들도 간단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일에 대한 태도와 관념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죠. 개인에게 있어

서 노동이 갖는 의미가 명확해야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노동의 활성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명확히 이해해야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 노동교육에서 개선할 점은
“노동교육은 정식 교육과정에 편입돼야 합니다. 학년에 따라서 달라지는 체계적인 교육이 돼야 해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노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관련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사회가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죠.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일도 사회 안정이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심하지 않았던 것도 배달 노동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

문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진로 탐색 교육도 최근에는 창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가 될 입장인데 말이죠. 고등학교 때는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노동법 등의 더욱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노동 인권 교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그마저도 조례들이 임시 조항인 경우가 많고 예산 문제나 재정 제약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례 내용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 차원에서의 노동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외부 강사의 일회적 교육이거든요. 노동교육을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로 시행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중앙 정부 차원의 노동교육 관련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입법이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외국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에 산업 안전과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조차 그렇게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노동환경과 노동 인식의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노동교육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글 | 이가림 기자 forest@ 사진제공 | 송태수



송태수 교수는 “노동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선 인식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물어보는 노동2〉이찬주 작가 인터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공사 중”

건설 노동으로 시작한 작품 활동
하는 일은 달라도 우린 모두 노동자
이해와 존중 바라는 마음 담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태일 기념관에서서는 〈물어보는 노동〉 연속 기획 전시가 8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다. 〈물어보는 노동〉은 노동을 찬박하고 거친 행위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기 위해 시작됐다. 건축 기술을 활용해 작품활동을 이어 나가는 이찬주 작가가 연속 전시의 두 번째 주자를 맡았다.

〈물어보는 노동 2: 이찬주〉에서는 설치작품과 드로잉 19점을 볼 수 있다. LED와 광학산 플라스틱을 활용해 태양을 표현한 설치작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전시회를 은은한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작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을 작품으로 표현해 하루를 견뎌낸 노

동자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넨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퇴근길이 ‘누군가에게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

- 건축 기술을 활용한 작품활동의 계기는
“대학 시절에 건설 노동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았고, 건설 노동에 활용되는 공구가 조소와 전공 수업에서 사용하던 것들과 유사해 시작하게 됐죠. 아르바이트를 하며 무언가를 만든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며 건설 노동과 조소 각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많이 다른 것을 느꼈어요. 똑같이 시멘트를 바르고 나무를 재단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일인데 건설 노동은 많은 사람에게 터부시되는 육체노동이고 조소는 고상한 예술 활동으로 인식됐죠. 이 두 노동의 차이점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건축물을 활용한 예술작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제가 전태일 기념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노동의 다양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전시 기획에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 노동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노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직종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긍정적 변화예요.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파적 인식도 변화하길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사회적 배경과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고위 공무원이나 고소득자들의 일도 노동입니다. 노동의 의미가 ‘육체적으로 고된 일’로 국한되지 않고 사전적 의미인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드로잉 작품 세 점에는 공사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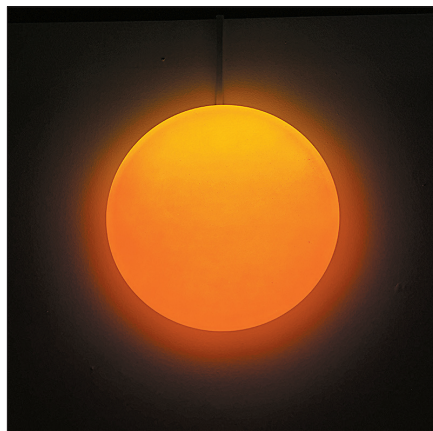
들이는 행위’ 자체로 순수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와야 해요.”

- 이번 전시 작품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집을 열기구에 매단 형상의 ‘우리집시리즈’는 ‘땅에서는 집을 가질 수 없으니 하늘에서라도 갖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착안한 작품들입니다. 집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당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만든 그 공간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 땅 위에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없다’며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기성세대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많은 청년이 사회와 기성세대들을 따라 ‘내 집 마련’에 인생을 걸고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이직, 퇴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출사표를 던지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출항을 준비하거나 떠나고 있죠. 이들을 위

로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집시리즈’ 속 각각의 열기구에는 사회구성원인 개인을 의미해요.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여러 의미의 집을 짓고 있죠. 각자의 집을 완공하기 위해 늘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작품의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열기구처럼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드로잉 작품에는 공사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양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기초 공사 공정을 보면서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로 튼튼한 골조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단해져라’는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단단한 내실을 다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에는 수많은 노동이 존재하기에 노동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시장에 펼쳐진 작품 전체가 산업현장의 노동과 같은 *그라잉당, 용접, 재단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건설 노동과 예술 노동이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육체노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고민해봐



퇴근길의 석양을 표현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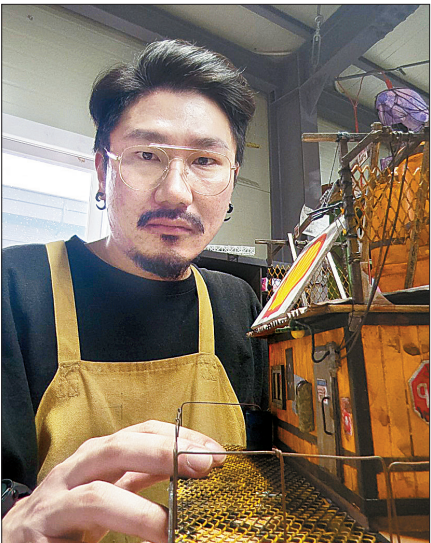


‘우리집시리즈’는 집을 열기구에 매단 형상이다.

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집과 도로, 학교 등의 산업 기반 시설을 만드는 활동이 다 육체노동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미술가나 작가의 육체노동은 ‘고상한 행위’, 산업현장의 노동은 ‘천박한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제 전시가 ‘나와 주변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잉당:** 회전 수틀로 가공물의 표면을 갈아 반들반들하게 하는 일

글 | 이가림 기자 forest@ 사진 | 양수현 기자 positive@ 사진제공 | 이찬주



이찬주 작가는 작품에 건축 기술을 활용했다.